



선지자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닐 엘 앤더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노년의 모임 • 2007년 3월 4일 • 브리검 영 대학교

33년 전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재학중이었을 때 저는 오늘 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임과 비슷한 저녁 노년의 모임에서 조그만 역할을 맡았습니다. 연사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이셨는데 그분께서 매리엇 센터로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가시는 동안 저는 그분 바로 곁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 서실 때 긴장이 되지지는 않는지 여쭙어보았습니다. 웃으면서 그분께선 말씀하셨습니다. '앤더슨 형제, 아시겠지만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는 말씀이 경전에 있지요. (교성 38:30)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떨리는군요.' 당시 그분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저는 비로소 오늘 밤 알 것 같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모인 여러분께 저의 사랑과 존경심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함과 복음에 대한 헌신, 여러분의 신앙과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는 여러분의 바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 말씀과 여러분의 이해력을 축복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쇠막대를 굳게 잡음

저는 오늘 밤 모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월초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했습니다. 2월에 말씀할 예정이셨던 베드나 장로님께 저는 말씀할 주제를 결정했는지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쇠막대를 굳게 잡[는]" 것에 관한 내용임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한 주제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합창단이 방금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이 아름다운 노래는 당시 그들이 이미 연습했던 곡이었습니다.

베드나 장로와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를 토론하면서 우리가 그 주제에 달리 접근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나 장로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님께서는 교회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된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전하지기를 바라는 메시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베드나 장로님 말씀이 있기 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께서 "리하이의 꿈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또한 "쇠막대를 굳게 잡는 것"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 포함시키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주제입니다.

패커 회장님과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몰몬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생명나무에 관한 리하이의 꿈에 있는 핵심 요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나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써 받은 기쁨과 행복은 구주의 속죄가 주는 축복을 상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니파이전서 8:10; 11:8~9, 21~24 참조)²

또한 크고 넓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니파이전서 11:35~36; 12:18 참조) 패커 회장님의 말씀은 꿈의 이 부분에 관해 지금껏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의 틀을 제 마음에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꿈에는 악마의 유혹을 나타내는 어둠의 안개(니파이전서 12:16~17 참조)가 있었으며 그것은 나무에 이르는 길을 어둡게(니파이전서 8:19~20 참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쇠막대(니파이전서 11:24~25 참조)가 있었고 그것은 어둠의 안개 속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와 나무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합창단이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 주었습니다.

*"잡으라 강한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막대기 우릴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리"*³

이 찬송가를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로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이 찬송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니파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 대적의 유혹[도]

그들을 이겨 ...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니파이전서 15:24) 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서로 얽혀있고 서로를 지탱하여 부동의 막대를 형성하는 세 가지 강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요소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첫째, 경전 또는 고대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달에 베드나 장로님께서 하신 예리한 질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기 위한 방법으로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습니까?”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둘째 요소는 성신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개인적인 계시와 영감입니다.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막대를 굳게 잡는다면 성신의 은사를 지니고 여러분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쇠막대를 굳게 잡고 저버리지 마십시오. 성신의 권능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3니파이 18:25; 교성 9:8 참조)⁵

오늘 밤 제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세번째 요소인데, 이것은 다른 두 요소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쇠막대의 이 셋째 요소는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또한 살아 계신 선지자가 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 계신 선지자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증가 되고 그분들에게서 배운 것에 속히 반응하며 그분들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

오래 전에 제일회장단에 계셨던 조지 큐 캐넌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을 갖고 있더라도 살아 계신 선지자들과 주님에게서 끊임없이 나오는 계시가 없다면 이 모든 책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해의 왕국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선언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그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물론 이런 기록들은 대단히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소중한 기록들이며 아무리 면밀하게 공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하는 모든 빛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인간의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면전으로 인도하는 데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신권

그리고 사람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그들에게 오는 끊임없는 계시가 필요합니다.”⁶

물론, 오늘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제일회장단에 계신 고든 비헝클리 회장님과 두 분의 보좌,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인정하지만 저는 때로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권고와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욱 적극적이고 면밀하고 민감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십시오.

제일회장단에 계신 세 분의 이름,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를 구성하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 열다섯 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들 선지자들의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은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거나 알아보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월 연차대회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어떤 권고를 주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또한 올해 세 달 동안 *엔사인* 및 *리아호나*의 제일회장단 메시지에 실린 헝클리 회장님, 몬슨 회장님, 파우스트 회장님의 관심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분은 이들 열다섯 분 가운데 어느 한 분에게서 받은 권고로 인해 자신의 생활에서 무언가를 변화시켰던 최근의 결정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의 부름과 책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16) 이런 분들에게 그런 성임은 영적인 권능과 엄숙한 책임, 즉 알고 증거하는 권능과 가르치고 축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책임과 약속을 가져 옵니다. 우리는 듣고 따를 책임을 지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축복이 따를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내가 택하여 너희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한 이 열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제3니파이 12:1). 정말 힘든 시기인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나의 백성이 내 음성과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교성 124:45)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일상의 평범한 직업”⁷을 가진 열다섯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시하는 열쇠와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할 것을 강요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강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반응을 보이고 성신이 그분들의 권고를 확인해 주는 대로 우리의 행위를 기꺼이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쇠막대를 계속해서 굳게 잡고,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에 영원히 안전하게 머물게 됨을 의미합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권고를 어떻게 찾고 굳게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분들을 지지할 때 사용하는 세 단어, 즉,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라는 말에 관해 더 깊이 숙고해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선지자

먼저, *선지자*라는 낱말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요한계시록 19:10) 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들의 확실한 증언은 교회와 세상에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들이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성 107:23) 다른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의 음성은 주님의 신성과 그분의 실재에 관해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분들의 제자 됨에서 시작하여 그분들의 성임을 통해 강화된 이런 증언은 우리의 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은 성신이 그 증언을 우리 마음 속으로 전하도록 단순하게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분들이 이런 말로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있음을 제가 확실히 알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⁸ 또는 “저는 예수가 우리의 신성한 구주요, 구속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각을 통해 그분의 실재하심을 제가 알고 있고 너무도 신성하여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⁹

이러한 증언들은 강력하면서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고 우리를 강화시키는 영적 확인을 동반합니다.

천사의 역할을 설명하며 모로나이가 가르치기를:

“또 그들의 성역의 직무는 (천사의 성역을 뜻하며) ...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택하신 그릇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또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길을 예비하사, 성신이 ... 그들의 마음에 있을 곳을 가지게 하시나니” (모로나이 7:31~32)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주가 택하신 그릇입니다.

구주를 믿는 우리 자신의 신앙은 우리 삶의 때와 절기를 거치며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안개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의심과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의 특별한 증인들이 전하는 구주에 관한 엄숙하고도 확실한 간증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영으로 받은 그 증언은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가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발판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젊은 제 친구 하나가 비극적인 사고로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그 후 여러 달 뒤에 밀려드는 외로움과 함께 “왜”라는 질문과 슬픔, 의심이 그의 생활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것을 더 이상 확신하지 않는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의심을 조금 덜고 구주와 그분께서 그릇으로 택하신 분들의 말씀에 조금 더 의지해 볼 것을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제 친구는 경전과 구주의 약속, 그리고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용기를 주는 담대한 증언에 폭 빠져들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이 흔들릴 때 구주에 관한 그분들의 확실한 간증을 계속해 굳게 잡았습니다. 그는 쇠막대를 계속해서 굳게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흩어지고 그 나무가 시야로 다시 들어왔고 그는 소중한 속죄의 열매를 취했습니다.

선견자

다음으로 *선견자*는 어떤 분입니까? 물문경에서 암몬은 립하이 왕에게 선견자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선견자는 지난 일과 또한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인 바, ...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요, 알려지지 아니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며” (모사이아 8:17)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이 평화스런 곳에서 뱃놀이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야가 갑자기 넓혀져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뱃놀이가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선견자는 보다 넓은 시야를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봅니다. 그들의 말씀과 권고는 우리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쇠막대를 굳게 잡으며 그분들의 권고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 십일조의 축복에 관해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주제에 관해 총관리 직원들에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촉구드립니다.¹⁰

우리는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일에서 그분께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약속된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고대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반복해 드립니다.”¹¹

2001년 가을, 십이사도 중 세 분께서 같은 시간 브라질에 방문하셨으며 각 사도께서는 정직한 십일조의 약속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몇 달 후 상파울루의 한 젊은 대학생이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힝클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는 [학비를 완납하지 않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을 금하는 학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제가 급여를 받은 것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한달 예산을 계산해 보았을 때, 십일조와 학비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격월로 보는 시험이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그 학년 한 해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 앞에 고통스런 결정이 놓여있었고 저는 어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녀는 주님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요일에 그녀는 십일조를 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 갈 때 고용주가 다가와서는 그 날의 마지막 지시를 주었습니다. 고용주가 잠시 머뭇거리는 듯 싶더니 ... 갑자기 ‘학교는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은 ‘다 좋습니다!’ 였습니다. 고용주는 생각에 잠기며 저를 쳐다보더니 다시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느닷없이 비서가 방으로 들어와서는 제가 ...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용주가 오늘부터 당신의 학비와 교재비를 전액 회사에서 지원할 겁니다. 가기 전에 제 사무실로 와서 학비 금액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일 수표를 줄게요.’”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서]가 떠난 후에, 저는 겸손해진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관대함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그렇게 많이 축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한달 치 학비만이

필요했었고 제가 일요일에 냈던 십일조는 제가 받은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토록 자주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¹²

어둠의 안개 속에 둘러 쌓여 있을 때의 결정은 어렵고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쇠막대를 계속해 굳게 잡았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그녀의 신앙은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경험들에서 해결책이 언제나 그렇게 즉각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십일조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대한 약속은 절대적으로 분명합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귀환 선교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항상 활동적으로 남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십일조를 낼 때 항상 정직하십시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계시자

마지막으로, 계시자입니다. “영어 단어 *revelation*, 즉 계시라는 낱말은 그리스 어의 *apocalypse*에서 왔는데 이것은 알리거나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¹³ 계시자로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구체적인 관심사항과 그에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과 더불어 계시자들은 필멸의 세상을 지나는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향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2005년 8월에 헝클리 회장님께서 연말까지 몰몬경을 읽을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여가 시간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권유에 자주 따라 오듯이, 헝클리 회장의 권고에도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 당시 2005년 8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저 없이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몰몬경을 몇 번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더욱 충만한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¹⁴

선지자가 약속한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의 한 청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성신이 저와 함께 하여 제 마음을 밝혀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몰몬경이 제게 새롭게 열렸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독일의 한 형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더 오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전에 갖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몰몬경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느낀 영으로 인해 구속주에 대한 제 간증이 더 커졌습니다.”¹⁵ 유타의 젊은 가족이 보낸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몰몬경을 읽는 동안] 우리는 네 살짜리 우리 꼬마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도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방이 왜 그렇게 어질러져 있는지 물었더니 아이는 몰몬경에 나오는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방을 약탈해 갔나 봐요!”¹⁶

계시자의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헝클리 회장은 교회의 젊은이들인 여러분께 가능한 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라고 강하게 권고하셨습니다. 10월 연차 대회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크게 염려하는 다른 문제 하나를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에 관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오셨습니다.”¹⁷

무엇이 중대한 관심사항입니까? 교육입니다. 누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께 이것을 알려주었습니까? 그분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교육을 뒷바라지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에 관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굳게 쇠막대를 잡으십시오.”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그것은 학교에 계속 등록하거나 복학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동차를 팔거나 보다 검소한 여건에서 생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는 희생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영구 교육 기금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신앙을 필요로 하며 주님과 주님의 선지자에 대한 신뢰를 요합니다. 그것은 이 일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면서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쇠막대를 계속해 굳게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구체적인

권고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부모님 및 감독님과 여러분의 관심사를 협의하십시오. 거기에는 인내와 신앙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응답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남미대륙의 신앙을 지닌 많은 젊은이들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수천 명이 헝클리 회장님을 신뢰하고 교육을 추구하면서 쇠막대를 굳게 잡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권고는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각 구성원에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모든 분들을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합니다. 만약 시간이 더 있다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권고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중 한 분이 주신 권고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거의 이년 전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께서는 오늘밤과 비슷한 저녁 모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그저 “몰려다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데이트를 주제로 거론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이끌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독신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성과의 교제를 축구나 터치 풋볼 같은 팀 스포츠로 발전해 가는 기대만을 갖게 하는 어울려 다니기가 아닌 결혼으로 발전해 갈 가망성이 있는 데이트로 방향을 바꾸기를 조언합니다..”¹⁸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이런 경고를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장차 영감 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

“제 인생에서 영감 받은 권고를 따르는 것을 미루거나 나는 그 권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의 권고를 듣고 기도를 통해 그 권고를 확신하고 따랐을 때마다 제가 더욱 안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¹⁹

지난 이년 동안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굳게 쇠막대를 잡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옥스 장로님의 권고에 긍정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이 따르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고 나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애리조나의 한 부부가 교회 본부로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

“... 장로님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권고는 데이트가 서로를 보다 잘 알게 되는 기회이며 오래 지속되는 관계나 결혼에 대해 즉시 결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²⁰

그 결과로 그들은 5월에 워싱턴 디시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이 원리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훌륭히 가르쳤던 제 아내 케시에게 선지자들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그녀의 느낌을 나누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캐시 앤더슨 자매로부터의 글

형제 자매 여러분, 약 20년 전에 제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연차 대회를 함께 듣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스테이크 센터로 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회 말씀이 실린 엔사인 잡지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신 분들의 말씀들 중 하나를 매주 가정의 밤에서 공과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지만 글씨를 읽을 정도는 되었으므로 우리는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각각 잡지를 하나씩 갖기를 원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엔사인 잡지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없었기에 저는 우편으로 받은 엔사인을 복사하기 위해 동네 복사 가게로 가서 가족들을 위해 말씀들을 복사했습니다.

복사를 끝내고 복사된 것을 계산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점원이 복사 매수를 세어보고는 제게 거의 50달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말씀 드리기 부끄럽지만 그 금액을 보고 속이 조금 쓰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위해 이 말씀들을 복사하려고 내기에는 많은 돈인걸” 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생각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갖게 되는 것이 너와 네 가족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지?”

그 당시에도 알았고 지금 더욱 강한 확신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갖는 것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장래의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순수하고 굳건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축복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오 캐시, 그리고 당신에게 감사하오.

한 달 후에 우리는 교회 연차 대회에 참석하여 우리가 오늘밤 언급한 분들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연차 대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잠시 뒤로 하고 주님의 종들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몇 달 동안의 진로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부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 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각 모임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달력에 연차 대회를 분명하게 표시를 해놓았는가?
- 나는 연차대회에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 남은 한달 동안 나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키겠는가?

또한 연차대회를 마치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대회 동안에 어떤 구체적인 감명이 내게 왔는가?
- 내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과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과 성신의 은사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계속해 굳게 잡으십시오. 쇠막대를 계속해 굳게 잡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2000년 3월에 경험했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0년 3월에 앤더슨 자매와 저는 뉴멕시코 앨버커키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말씀 부탁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이 짧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고 해의 왕국실로 들어갔습니다. 헝클리 회장께서 가운데 의자에 앉으셨고 그 오른쪽에는 십이사도 한 분이, 왼쪽에는 제가 앉았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첫 번째 모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을 수정해야 한다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신권의 열쇠에 관해 말하라. 신권의 열쇠에 관해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경전을 펼쳐 지상에 다시 주어진 신권의 열쇠를 설명하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강한 영적인 느낌이 제 마음과 정신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상에 있는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있느니라. 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상에 있는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있느니라”라는 느낌이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헝클리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의 강력한 나타내심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구를 생각했었습니다.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 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버리고 너희 유익 ... 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 (교성 21:5~6)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 두 분께서 함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헝클리 회장께서는 오늘날 기쁨부음 받은 주님의 선지자로 지상에 주어진 모든 신권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색인

1.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모임 말씀, 2007년 1월 16일 참조. 패커 회장의 말씀인 *Lehi's Dream and You* 는 온라인 상의 speeches.byu.edu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생수의 보고*, 교회 교육 기구 청년 독신을 위한 노년의 모임 참조, 2007년 2월 4일, 6쪽.
3. “쇠막대” 찬송가 170장
4. *생수의 보고*, 7쪽
5. *Lehi's Dream and You*, 3~4쪽
6. *Gospel Truth*, sel. Jerreld L. Newquist, 2 vols. (1974), 1:323. 살아 계신 선지자의 중요성에 관하여 교회의 4대 회장이셨던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껏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계시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다시 말해 에녹의 책과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판들과 계시자 요한의 봉인된 기록과 그 밖의 모든 계시들을 우리 앞에 쌓아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백 피트가 넘는 높이로 쌓여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살아 계신 선지자들 없이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sel. G. Homer Durham [1946], 53).
7. 보이드 케이 패커, 대회 보고, 1996년 10월, 5쪽; 또는 *리아호나*, 1997년 11월호, 6쪽

8. 보이드 케이 패커, 대회 보고, 2000년 4월, 9쪽; 또는 *리아호나*, 2000년 5월호, 9쪽.
9. 제임즈 이 파우스트, 대회 보고, 1995년 4월, 83쪽; 또는 *리아호나*, 1995년 5월호, 63쪽.
10. 대회 보고, 1985년 10월, 110쪽; 또는 *리아호나*, 1986년 1월호, 94쪽
11. 고든 비 헝클리, 대회 보고, 1984년 4월, 69쪽; 또는 *리아호나*, 1984년 7월호, 82쪽.
12. 대회 보고, 2002년 4월, 85~86, 또는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81~82쪽.
13. Bible Dictionary, “계시”, 762쪽.
14.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3쪽.
15. “주목할 만한 어떤 일: 축복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37쪽.
16. “도전에 응함“,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34쪽.
17. 대회 보고, 2006년 9월~10월; 또는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0쪽.
18. *일생의 헌신*, (교회 교육 기구 청년 성인을 위한 노변의 모임, 2005년 5월 1일) 5~6쪽.
19. 대회 보고, 1997년 4월, 33쪽; 또는 *리아호나*, 1997년 5월호, 25쪽.
20. 2006년 11월 19일자 서한.